성전 향하는 믿음, 성전 향하는 미신

(열왕기상 8:22~66)

27.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28.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성전 향하는 믿음, 성전 향하는 미신>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성전 향하는 믿음, 성전 향하는 미신'
오늘 '성전을 향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는 것이 믿음의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미신의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미신의 예를 들면 시험 날 미역국을 먹으면 미끄러져서 안 된다고 하거나, 시험을 보는 학교의 교문에 엿을 붙이는 행동입니다. 혹은 거래처 직원을 만나야 하는데 실수로 거울을 깨뜨렸으니 계약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러한 일상적이고 소소한 것들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미신의 범위는 엄청납니다.
우리는 보통 미신을 비과학적인 것으로 정의하고 종교적으로도 '망령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일반 사회적으로는 종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미신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정의를 사전에 쓰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으로 신앙과 미신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선 왜 이러한 미신이 생기는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돈을 벌면 돈을 잘 벌기를 바라고, 공부를 한다면 공부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연애를 하면 연애가 잘되기를 바라고, 건강에 관심이 있을 때에는

건강상태가 잘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연예인들은 인기를 얻기 바라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흥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모든 행동과 생각의 기본에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잘 안 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죽은 고양이를 본 것만으로도 낙심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잘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거울이 깨지든 말든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잘되는 것은 좋다고 여겨지는 가치를 얻는 것이고 반대로 그 가치를 잃으면 못되는 것입니다. 돈 벌면 잘되는 것이고 일류대학에 합격하면 잘되는 것이고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잘되는 것이고 승진하면 잘되는 것인데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얻는 것이 모두 가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적으로 미신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선악과를 따먹고 생겨난 일입니다. 돈이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미신은 타락한 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갖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잘되기를 바라며 기도를 하는데, 돈을 중요시하고 있다면 돈을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타락의 징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미신입니다. 이 세상 것들의 호불호를 판단하는 것이 타락의 상태이며, 그 판단에 의해서 잘되기를 바라고 잘 못되는 것을 염려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붙잡는 것조차도 죽으면 지옥 갈까 죄를 사함받기 위한 것일 뿐, 지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없이 안 좋은 것의 총체로 생각하고 있는데 미신입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가치판단을 내가 하면서 믿는 것은 무조건 미신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으로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한 맹신을 미신으로 정의하는데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과학을 근거로 미신을 분별하는 생각자체가 과학에 대한 맹신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 자체가 미신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복음신앙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과학처럼 무시무시한 미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론은 다른 이론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진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뉴턴의 기계적인 세계관에서 바라보자면 여기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이론을 이야기하자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조차도 절대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학에서는 오랫동안 원자가 물건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 믿었는데 그러나 이것도 미신이었을 뿐입니다. 원자를 깨보니 전자 양자 핵 미립자가 나왔습니다. 더 들어가 보니 이번에는 물건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는 '확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것 또한 미신일 수 있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46억년이 맞습니까? 탄소측정방법을 통하여 지구의 나이를 46억년이라고 구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6,000년인데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무르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1초 안에 46억년이 지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미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과 미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면 성전을 미신화 하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망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지만 이것은 미신이었습니다. BC586년에 남 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왕과 모든 백성과 신하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기도는 기도를 위한 기도였는데, 선민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성전의 역할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선민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는 경우를 일곱 가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맹세와 관련하여 악인과 의인을 판결할 때에 증거가 없어서 죄인으로 규정할 수가 없을 때에 맹세를 하게 합니다. 피의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무죄를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벌을 주시거나 방면하시기를 바랄 때의 기도(31~32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했을 때의 기도(33~34절).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가뭄이 들 때의 기도(35~36절). 기근과 온역이 있을 때의 기도(37~40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 간구할 때의 기도(41~43절). 주의 백성이 전쟁에 나갈 때의 기도(44~45). 적국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기도(46~53).
이러한 일곱 가지 경우는 인간이 삶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찰에서 불상을 향하여 백일기도를 하거나 사찰 마당에서 탑을 천 번을 도는 것, 혹은 고목나무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드리는 것, 특별히 성전을 향한 기도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이슬람의 교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높이 15m 가로 12m 세로 10m의 큰 건축물에 검은 천을 드리움, 카바)를 향해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를 드리는 행위는 어떨까요?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과학적인 근거에서 보자면 미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이 성전봉헌 중에 드린 기도에서 선민들이 삶의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것도 과학적인 근거로서 볼 때에 미신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종교적인 행위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결국 선민들도 성전을 미신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성전이 있기만 하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마치 거울이 깨졌으므로 오늘 계약이 깨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전 봉헌식 중에 솔로몬의 기도의 자세를 보면 54절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번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기도드렸는데 이것이 미신과 믿음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데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전을 향한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예루살렘 성전과 멀리 떨어진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성전을 향해 기도를 할 때에는 번제단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성전에서는 일 년 365일 아침저녁으로 일 년 된 어린 양으로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음을 생각하며 그 제사로 인해 내가 죽는 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며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고 있었을지라도 성전을 향할 때에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음을 알고 번제단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이는 번제자가 취할 자세인데, 양이 죽을 때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마음이 성전을 향하자마자 번제단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의 마음이 양의 죽음과 동일시되는 것이 성전을 향한 바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성전을 향한 기도는 내 마음이 지금 성전의 모습과 똑같은 형태로 변해가는 것이고 지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한 기도는 이슬람 신도들이 메카의 카바처럼 돌덩어리 큰 건축물에 검은 천을 씌워 놓은 것을 향해 절하는 것과 다르게 성전의 구성요소들이 내 마음의 생김새와 모습의 변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듯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들어와야 합니다. 전에는 돈 건강 자녀 합격 형통 승진 결혼 등과 같은 온갖 이름들이 들어와 있었지만 번제단 앞에 무릎을 꿇자마자 그러한 이름들이 죽어버리고 지성소에 법궤만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한 번제단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모시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므로 하늘로 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다 말고 하늘로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식을 키우다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갑자기 자식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번제단에서 죽고, 내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지성소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면 자식은 누가 키울 것입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내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지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면 성소에 있던 떡상 등대 분향단이 뜻하는 바대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

이 하나님으로 배부르기를 바라고 하늘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성전 봉헌식 때에 법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자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임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장이나 자녀 양육의 현장이나 회사에서 내 마음이 성전이 될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시에 내 마음의 승천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마음은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으로 배부름이 일어나고, 내 육신이 살아가는 직장이나 가정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사람과 사람관계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사람에 대한 모든 행동과 말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 마음이 승천하여 하늘에 머물고 하늘로 만족하고 있을 때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대보다 우월한 입장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므로 이때부터 미신이 사라지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어제 본 제사장이 몸을 씻었던 바다는 손 씻는 것을 뜻하고, 열 개의 물두멍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 아닌 다른 이름의 가치가 들어온 더러움을 씻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성전의 구성과 모든 기구들이 뜻하는 바를 종합적으로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에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한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전을 향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미신적인 삶에서 벗어남을 뜻합니다. 돈이 있거나 오래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도 다 미신입니다. 우리는 내일 죽더라도 잘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미신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장대 위의 놋 뱀을 바라보듯이 마음으로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듯이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죽었음을 계속 고백하면서 아내를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가는 게 보입니다. 내가 사업을 해야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사업을 쥐고 계신 것이 보입니다. 자녀나 애인을 향해서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럴 때에 결혼을 해도 내가 좋아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결혼이 되는데 신비한 일입니다.
성전을 향한 기도는 번제가 포인트입니다. 번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듭니다. 어떤 삶의 처지에 있든지 내 마음이 갈 곳은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마음의 승천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므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삶으로부터 미신이 추방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성전을 향한 기도를 완성하는 십자가 바라보기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하늘로 승천하고 이 땅의 나와 관계 맺은 모든 사람과 사물과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뻗어나가며 미신이 완전히 제거되는 복된 선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